

세계동물보건기구(OIE) 79차 정기총회를 다녀와서

[부제 : 수의학 250년사, 최초 동물 질병 박멸을 선언하다]

세계동물보건기구, OIE라는 명칭으로 우리에게 더욱 친숙한 그곳. 매년 5월이면, OIE 본부가 위치한 파리에서 세계 각국의 회원국 대표들이 모여 정기총회를 갖는다. 올해로 OIE 회원국의 수는 178개국이 되었는데, 이번 정기총회에는 135개의 회원국 및 참관국의 500여명의 대표단과 국제기구 대표 20여명이 참석하였다. 예전부터 한번쯤은 OIE 정기총회에 꼭 참석해 보고 싶다는 생각을 했었는데, 마침 올해 기회가 닿아 대한민국 대표단의 일원으로 참석할 수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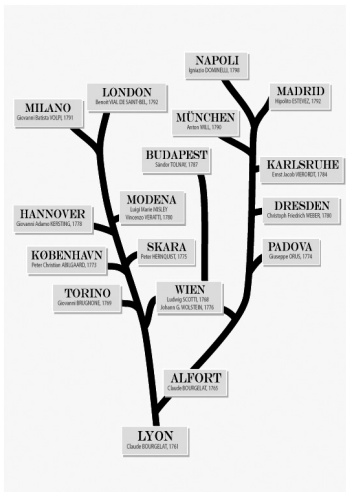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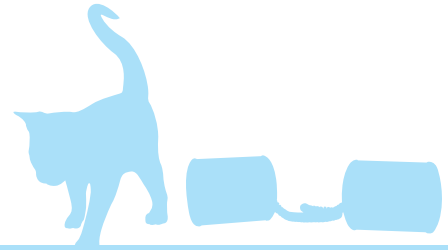
▲ 총회장 전경

올해의 가장 큰 이슈는, 단연 수의학(Veterinary profession) 탄생 250주년이라는 사실과, 인류 최초의 동물 전염병 박멸에 관한 것이었다.

세계동물보건기구(OIE) 79차 정기총회를 다녀와서
 [부제 : 수의학 250년사, 최초 동물 질병 박멸을 선언하다]



오 윤 이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 바이러스질병과
 수의연구사
 yooniah@korea.kr



▲ 출처 : OIE Bulletin 2011. 1.

1761년 프랑스 리옹에서 끌로드 부글라(Claude Bougelat)가 최초로 수의과대학을 설립한 이래, 올해로 250년이 흘렀다. 마장마술을 하던 끌로드 부글라는 말 질병에 대해 관심을 갖게 되었고, 그 관심이 현재 수의학의 시초가 된 것이다. 그는 1761년 리옹에 '가축질병을 고칠 수 있는 방법과 원리를 가르치는 개방형 학교 설립'을 제안하였고, 그 제안이 루이 15세에 의해 받아들여져 우리 직종(Veterinary profession)의 근간이 된 것이다.

프랑스 리옹에서 시작된 수의과대학이 유럽 전역으로 퍼져나갔으므로, 하나의 뿌리에서 시작된 우리 수의사 모두는 부글라를 아버지든 하나의 가족이라는 점을 강조하였다. 이렇듯, 올해는 수의학사에 매우 중요한 이정표가 되는 해이므로, 올해를 세계 수의학의 해(World Veterinary year 2011)로 지정하였다.

지금까지 지구상에서 박멸된 전염병은 사람에서의 천연두(smallpox)가 유일했었는데, FAO와 OIE의 지속적인 공동노력으로 동물 질병으로는 최초로 올해 우역(rinderpest) 박멸을 선언하였다. 서기 376년 최초로 기록된 이래 근 2천여년간 지구상에 존재해 왔던, 동물 질병으로는 가장 무시무시한 질병으로 여겨졌던 우역이 10년전부터 발생 보고가 되지 않아, 올해 공식적으로 전 세계 198개국이 우역 청정국으로 명명되었고, 동물에서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질병으로 분류 되었다. 하지만, 여전히 천연두와 마찬가지로, 실험실이나 백신 생산시설에 보존되어 있으므로, 유출 사고 등에



▲ 전세계 우역 현황도

철저히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전문가들은 경고하였다.

우역 박멸은 6월 FAO 회의에서 공식적으로 선언되었고, 우역 박멸에 힘쓴 과학자들에게는 메달이 수여되었다고 한다. 올해는 수의학 250년 역사에 기록될 최초 동물질병 박멸의 쾌거를 이룬 중요한 해로 영원히 기억될 것이다.



▲ 대표단 지정석

총회장은 1층과 2층으로 나뉘어져 있었다. 1층에는 각국 대표(CVO 혹은 OIE delegate) 2인의 자리가 각각 마련이 되어 있었고, 나머지 관람석은 2-3층에 마련이 되어 있었다. 국제회의 성격에 맞게 영어, 프랑스어, 스페인어가 동시 통역이 이루어졌고, OIE가 프랑스에서 시작된 만큼 불어가 우선이 되어서 그런지, 알파벳 순으로 자리배치가 이루어져서 한국의 자리는 앞부분에 위치하여 있었다. 나란히 위치한 남한과 북한 자리. 두개의 한국이 가슴 시리게 다가왔다.

북한측 대표단은 보통 프랑스 유네스코에 파견 나와 있는 직원이 참석한다고 하는데, 전야제 날과 총회 중간 두어시간을 제외하고는 항상 자리가 비워져 있었다.

특히 이번 총회에서는, 공식일정 첫날 저녁 총회에 참석중인 각국의 대표단들을 프랑스주재 한국대사관으로 초청하여 한식 홍보 및 수출 촉진을 위한 행사를 개최하였다. 각국의 대표단 및 국제기구 관련 참가자 등 약 400여명이 참석하였고, 행사는 성황리에 마무리 되었다. 이번 대표단에 함께 참석한 농림수산식품부 제2차관님은 축사를 통하여 한식의 우수성을 강조하였고, 널리 홍보하여 줄 것을 참석자들에게 요청하였다. 아울러 9월 광견병 방역에 관한 국제회의(인천), 10월 세계소동물수의사대회(제주) 및 2012년 국제양돈수의사회(제주) 등, 한국에서 열리는 수의관련분야 국제회의에 대한 홍보를 병행하였다. 행사를 진행하는 중 농



▲ 초대장

세계동물보건기구(OIE) 79차 정기총회를 다녀와서
[부제 : 수의학 250년사, 최초 동물 질병 박멸을 선언하다]

림수산식품부에서 제작한 한식홍보영상을 대형 모니터를 통하여 상영하였고, 홍보영상물 DVD 세트를 참석자들에게 배포하였다. 본 리셉션을 통해 각국의 대표단 및 전문가들과 교류의 폭을 넓히는 계기가 자연스럽게 마련 되었다.



▲ 프랑스 주재 한국대사관 행사 전경 및 주불대사님과 대표단

이번 총회의 기술의제(Technical Item)는 각각 식품안보(Food Security)와 구제역(FMD) 2가지에 관한 내용으로 Dominique Matinez 박사와 Joseph Domenech 박사가 발표를 하였다. 현대를 살아감에 있어서, 식품안보 및 공중보건의 중요성과 현재 수의학 역사에 파급효과가 가장 큰 구제역이 우리 분야에 미치는 영향이 어떠한지를 알 수 있는 주제 선정이었다 하겠다.

현재 OIE에서는 다양한 전문가 그룹이 운영되고 있다.

주요 특별위원회(Specialist Commission)는 4종류로, 위생규약위원회(Terrestrial Animal

일반원고 I

Health Standard Commission, 일명 Code Commission), 동물질병과학위원회(Scientific Commission for Animal Disease, 일명 Scientific Commission), 생물학기준위원회(Biological Standard Commission, 일명 Laboratories Commission), 수생동물위원회(Aquatic Animal Health Standard Commission, 일명 Aquatic Animal Commission)로 구성되어있다. 각 위원회는 연2회(9월과 2월) 정기회의를 개최하며, 각 6명의 위원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이들의 임기는 3년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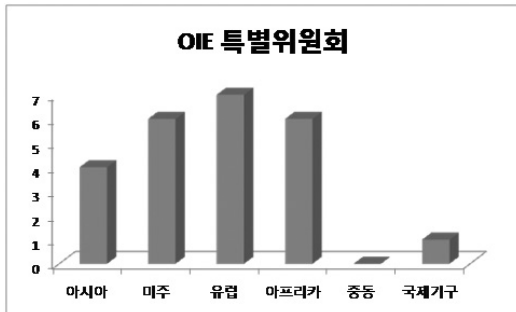
위생규약위원회는 말 그대로, 최근의 과학적 근거에 기초하여 위생규약을 업데이트 하는 기능을 한다. 과학위원회는 가장 오래된 위원회로써, 각 회원국의 동물질병 현황에 관한 인증 절차와 질병 예방 및 통제에 대한 전략을 세울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한다. 생물학기준위원회는 실험실 위원회로도 불리는데, OIE-listed 질병에 대한 백신 및 진단법 확립 및 승인에 관여하는 위원회로, OIE 표준 실험실(Reference Laboratory)을 선정하는 역할을 하기도 한다. 수생동물위원회는 이전의 물고기 질병위원회(Fish Diseases Commission)에서 변형된 것으로, 최근 들어 물고기와 수생동물의 국제교역의 중요성이 증가함에 따라 명칭이 변경되었다.

그리고, 작업반(Working Group)은 야생동물(Wildlife Diseases), 식품안전(Food Safety), 동물 복지(Animal Welfare) 세가지로 평균 연1회 정기회의를 갖는다.

그리고, 특별위원회 및 작업반이 상시로 소집하여 운영하는 전문가 그룹(ad hoc group)이 현재 29개 정도가 만들어져 운영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광견병, 돼지열병, 구제역, 매뉴얼 개정 등 각 분야에서 ad hoc 그룹에 참여하고 있고, 그 범위를 확대하고자 노력 중에 있다.

현재 OIE 특별위원회의 위원 구성은 아시아 4명, 미주 및 아프리카 각 6명, 유럽 7명으로 아시아 지역의 전문가 비율이 낮은 편이다. 이는 Working Group과 ad hoc도 마찬가지로, 아시아 지역의 전문가 비율이 낮은데, ad hoc의 경우 유럽이 41%를 차지하는데 반해 아시아 지역은 15%밖에 되지 않는다고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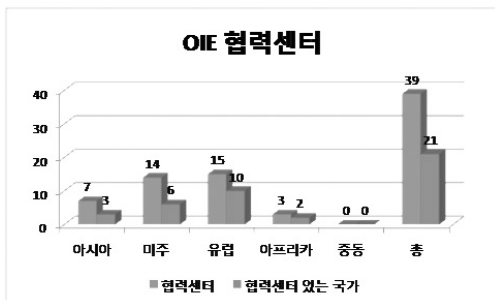


▲ OIE 특별위원회 위원 분포(출처:OIE 79차 정기총회, 아시아 지역부 회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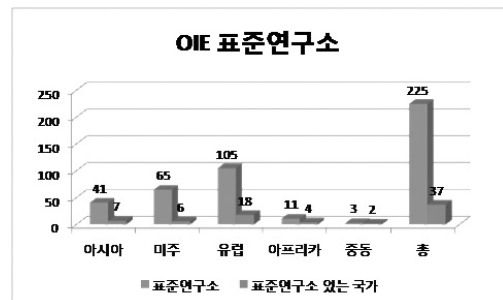
올해 열린 제79차 OIE 정기총회 중 열린 우리지역(아시아권) 지역회의에서는 이러한 점을 강조하며, 아시아권의 전문가 리스트를 발굴하여 OIE에 제공하자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앞으로 다양한 아시아 지역의 전문가들이 후보로 오를 수 있도록 지역부에서 적극적으로 OIE에 전문가를 추천하여 작업반 및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발될 수 있도록 하자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이러한 전문가 편중 현상은 비단 위원회 위원구성에만 있는 것이 아니다.

OIE에서는 다양한 질병 및 현안사항에 관련하여 OIE와 긴밀하게 협조를 받아 업무를 수행해 나갈 수 있는 협력센터(Collaborating Centres)와 국제표준연구소(Reference Laboratories)를 운영하고 있다. 현재 OIE 협력센터는 총 39개 센터가 21개국에서 운영 중이고, 표준연구소는 37개국에 225종이 운영 중에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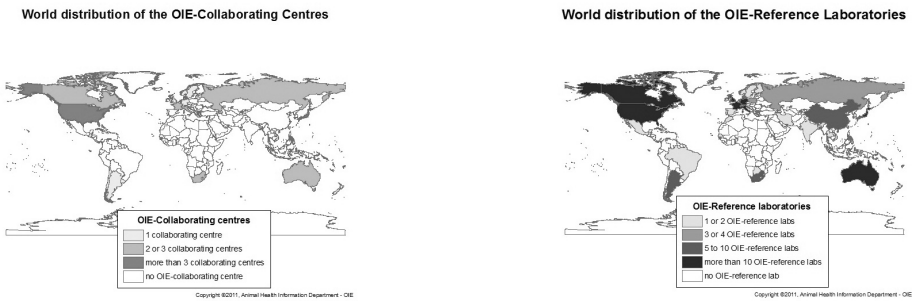


▲ OIE 협력센터 및 표준연구소 분포(출처:OIE 79차 정기총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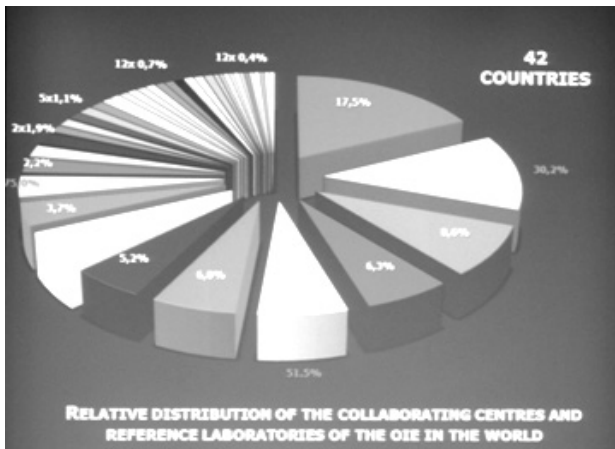
일반원고 I

이 역시 대부분 선진국 혹은 OECD 가입국에 편중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 OIE 협력센터 및 표준연구소 분포

생물학기준위원회 2011년 보고에 따르면, 전세계 협력센터와 표준연구소는 42개국에서 운영중인데, 이중 51%가 5개국에 집중되어 있고, 75%가 10개국에 집중되고 있다.



▲ 전세계 OIE 협력센터 및 표준연구소 분포 현황

이와 같이 일부 선진국에 전문가 집단이 몰리는 것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OIE에서는 쌍둥이 연구실(Twinning project)이라는 프로젝트를 구상하여 회원국들이 이에 참여하도록 독려하고 있

다. OIE의 협력센터 및 표준연구소에서 저개발국이나 개발도상국을 상대로 현 수준의 협력센터 혹은 표준연구실에 비등할 정도의 연구소를 만들겠다는 취지로 만들어진 것이 쌍둥이 연구실 프로그램이다. 지금까지는 협력센터와 표준연구실에서 진단이나 교육 등에 필요한 지원을 저개발국가 및 개발도상국에 지원을 하던 포맷에서, 이러한 기술들이 직접적으로 필요한 국가 혹은 지역에 협력센터와 표준연구실을 만들어 자발적으로 해결해 나가겠다는 취지로 보인다.

현재 다양한 쌍둥이 연구실 프로젝트가 진행이 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만들어질 예정이다. 하지만, 현재까지 쌍둥이 연구실 프로젝트를 통해 표준연구시설로 승인된 예는 아직 없다.

현재 우리나라에는 두 가지 질병에 대한 표준연구실(브루셀라, 뉴캐슬병)이 농림수산업검역검사본부에서 운영되고 있다.

그리고 ad hoc 그룹에는 2010년에 각각 광견병과 돼지열병에 관한 위생규약 개정 관련으로 초청을 받아 전문가로서 활동하였고, 이어 2011년 올해도 동일한 사안으로 다시 초청받아 위생규약을 현대화하고 개정하는데 의견을 개진하였다. 또한 올 9월에는 매뉴얼 개정 관련으로 국제역 백신 관련 전문가 그룹 및 매뉴얼 현대화 작업을 위한 전문가 그룹 회의에 각각 초청이 되어 활약을 하였다.

현재 우리나라도 점차로 전문가 그룹 회의에 초청 받는 사람이 늘어나고, 그 영역을 넓혀가고 있다.

각각의 위원회는 총회 기간 중, 전년도(9월과 2월) 정기회의 결과 및 성과를 발표하고 회원국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규정 등을 개정한다.

수생동물건강기준위원회(AAHSC)는 수생동물 위생규약 개정 및 표준실험실 인증에 관한 내용을 골자로 발표를 하였다. 특히 질병명칭을 변경(자일로닥틸루스증 → 자일로닥틸루스 살라리스 감염증)하거나, 연어과 어류의 알에 대하여 수입시 재소독과 같은 조치를 고려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 등은 원안대로 채택하기로 결정되었다. 3개소의 수생동물 표준실험실이 추가로 인증을 받았다.

동물질병과학위원회(SCAD)에서는 회원국에 대한 BSE 및 구제역에 관한 질병 지위를 평가하였는데, BSE에 관해서는 덴마크와 파나마가 경미한위험국가(negligible risk)로 인정되었다. 구제역에 관해서는, 위생규약에 구제역통제프로그램 인증에 관한 내용을 추가할 예정이며, 이는 회원

국의 자발적인 신청에 의해 OIE에서 평가를 거쳐 인증하게 되는 절차로서 현행되고 있는 구제역 질병 청정국 지위 인정과는 별개의 사안으로, 청정국 지위를 얻기 위한 중간 단계 과정임을 설명하였다.

육상동물위생규약위원회(Code Commission)에서는 용어 정의 및 질병 분류 개정, 구제역 통제프로그램 인증 등 대부분 위생규약은 총회 전 회원국들에게 송부된 내용과 큰 변동없이 내용이 채택되었다. 한가지, 동물복지와 육용닭(broiler) 사육 및 수송 관련 규정에서 동물 복지 문제를 들어 머리 위 공간(head room)을 늘려야 한다는 주장은 다양한 의견 수렴으로 채택되지 않았고, 내년 총회에서 다시 논의기로 결정되었다.

생물학적기준위원회(Laboratory Commission)은 7개소의 표준실험실 및 협력센터를 신규인증에 관해 발표하였다. 특히, 생물학적기준위원장은 표준실험실 및 협력센터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전 세계를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훈련 제공 등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진단에 필요한 샘플이 적기에 수송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고, 수의 당국이 협력하여 법률이나 예산의 뒷받침이 필수적이라고 피력하였다. 특히나, 표준실험실 등은 외부(외국)로부터 가검물이 들어와야 하므로, 법적으로 수입 허가 등이 뒷받침 되지 않는다면 표준연구실이나 협력센터 신청을 하지 않아야 한다고 하였다. OIE의 Vallat 사무총장은, 표준연구실이나 협력센터의 질적인 유지와 성장을 위한 새로운 정책이 필요하다고 하였으며, 기존의 표준연구실, 협력센터가 많기도 하지만 새로운 신청이 늘어나고 있으므로, 각각의 역할이나 책무 등을 유연성을 가지고 명확히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하였다. 아울러 향후 표준실험실 인증이 필요한 분야로서 일본뇌염, Q열, 가금 전염성 기관염 등을 제시하기도 하였다.

회의에 참석하여 진행되는 것을 지켜보면서 놀라웠던 점은, 위생규약위원회 보고할 때였다. 방대한 위생규약 중 주요 개정부분을 하나하나 짚고 넘어가야 해서 제공된 자료도 꽤 많았다. 헌데 몇몇 대표들은 영어버전과 불어버전 혹은 스페인어버전을 미리 비교, 숙지하고 회의에 참석하여 서로 일치하지 않는 부분을 지적하였다. 정말 앞으로 국제사회를 살아가는데 있어 영어 이외의 제2외국어(국제기구 인정되는 언어: 불어, 스페인어, 중국어)를 하는 것이 필수적인 시대가 올 것이란 생각을 갖게 된 계기가 되었던 것 같다.



또 한가지 흥미로웠던 사실은, 1997년 동남아시아를 주축으로 만들어진 SEAFMD (Southeast Asia Foot and Mouth Disease Campaign)에 2010년 중국이 가입되면서, SEACFMD로 명칭이 변경되었다는 것이었다. SEACFMD의 목적은 구제역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여 2020년까지 백신접종 청정지역을 만들고자 하는데 있다. 2010년 중국도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되면서, 중국 자체 생산 백신을 연중 2회 상시백신을 하기로 결정하였고, 2010년 총 12

억두(소, 양, 염소, 돼지 포함)에 백신을 접종하였다고 한다.

1997년 5%를 보이던 구제역 발생율을 2010년 기준으로 2%로 줄였고, 2013년까지 1%대로 낮추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렇듯 중국을 포함한 동남아시아 지역의 구제역 청정화 노력은 우리나라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아무래도, 일년에 한번 회원국들을 한자리에 모아서 일년간의 있었던 일을 정리하고, 향후 나아갈 바를 정하는 총회 자리여서 그런지 일정이 매우 빡빡했지만, 많은 정보를 습득할 수 있었고, 특히 다양한 지역/국가 출신의 사람들과 교류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이 되어 아주 새롭고 값진 경험이 되었다.

또한 이번 총회 참석을 계기로, 우리나라도 다양한 국제행사를 개최하여 나라의 위상을 높이고 우리를 알리는 기회를 많이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우리 과학자들도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그룹이나 위원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그 활동 범위를 넓혀야 할 것이란 생각이 들었다. [데](#) [수](#)